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

Wife's Employment and Family Expenditures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전임강사 양 세 정

Departmen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Se-Jeong Y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시사점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wife's employment to the family expenditures.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28,329 husband-wife families taken from 1994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The results showed that total expenditure for employed-wife families was 1,171,651won, which is more than 1,078,788won for non-employed-wife families. After controlling other income(total family income minus wife's income), employed-wife families spent more than non-employed-wife families for all expenditure categories. Also, when family income and other characteristics to be constant, expenditures of employed-wife families were more on food way from home, domestic services, public transportation, personal care services, and fees, but less on food at home, utilities, health care, and communication, compared to those of non-employed-wife families. Families with high-income-employed wife spent more on clothing services, but less on education, than those with non-employed-wife families.

I. 서론

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70년 39.3%에 불과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매년 꾸준한 증가를 보여 1995년에는 48.3%에 이르렀다. 여성취업의 증가는 이러한 양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와 함께 구조적으로도 변화를 보여 전체 취업 여성에서 차지하는 미혼여성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기혼여성의 비중은 증가하여 1995년의 경우 여성취업자의 74.8%가 기혼여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통계청, 1996).

이러한 주부의 시장노동에의 참여는 가정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며, 특히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보여진다. 단순히 이러한 영향은 주부취업에 의해 주어지는 가계소득의 양적인 측면에서의 추가에서 비롯되는 구매력의 상승이라는 점외에, 가정생활패턴의 변화를 초래함에 따라 가사노동에의 시간절약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다던가 또는 취업과 관련한 비용지출 등에 의해 가계소비지출행태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주부의 취업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7, 80년대를 기점으로 하여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이들 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는 외식비, 내구재, 서비스재에 대한 지출이 많으며(Bryant, 1988; Rubin, Riney & Molina, 1990; Vickery, 1979), 주부취업에 따른 외출복, 교통비 등의 취업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mocratic Study Group, 1990; Jacobs, Shipp & Brown, 1989).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주부의 증가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몇몇 연구(문숙재 & 김해연, 1995; 제미경 & 박명희, 1993등)가 수행된 바 있으나 주부취업과 몇몇 서비스재화와의 관계에 국한된 경우가 많았으며, 이 또한 수집된 자료의 한계에 따른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양세정(1993)의 연구는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전반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나 사용된 1990년 자료의 경우 당시 대다수 취업주부가 저소득층의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바 있었으며,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현재 내지는 미래의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최근자료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상태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주부취업에 따른 주부소득의 효과까지를 포함하는 지출행태변화를 살펴보고, 더불어 총가계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취업상태에 의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 주부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주부취업의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고소득주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이에 부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조사한 1994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를 사용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취업주부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가계 내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책입안의 입장에서는 주부의 취업증가에 의한 가계경제력 향상에 따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영향력을 예측함으로써 경제계획수립에 참조자료로 사용 가능하다.

II. 관련 선행연구 고찰

주부 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주제는 취업주부의 양적 증가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이후 이에 관한 검증을 시도한 실증연구들이 행해져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부취업의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1980년대에 들어 몇몇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1. 관련이론의 고찰

가계소득의 사용형태는 소득의 출처와 관련이 있다. 취업주부의 소득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따라 가계소비지출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가정하에 소득-소비간의 이분들을 적용하여 주부취업과 가계소비지출간의 관계를 추론하려는 연구들이 있었다. 항상소득가설을 주장한 Friedman(1957)에 의하면 가계소득은 항상소득과 임시소득으로 나뉘어지며 이때 항상소득이란 일생동안 평균적으로 획득될 것으로 기대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그에 의하면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에 의해 결정되며, 임시소득은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Mincer(1960)는 이러한 항상소득가설을 취업주부의 소비지출패턴에 적용시켰는데, 즉 주부소득은 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임시소득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일종의

저축적 성격을 지니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에 사용한다고 추론하였다.

Strober(1977)는 Duesenberry(1959)의 상대소득가설을 이론적 틀로 사용하여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는 그가 속한 집단의 소득 및 소비수준에 의해 자신의 소비수준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이에 근거하여 Strober는 자신의 가족과 동일한 가정생활주기에 속한 근거집단의 소득수준에 근거하여 그 수준만큼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기에 의해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주부의 취업결정은 남편의 소득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동기가 주부취업의 시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의 취업은 취업관련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게 되며, 따라서 주부취업에 의해 동일한 가계소득수준을 유지하고도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성향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ecker(1965)의 가정생산이론은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의 가계소비지출이 차이가 나는 요인에 대한 다른 각도의 이론을 제시한다. Becker 모델에 의하면 가계는 최종재(commodities)를 생산하는(produce) 주체임과 동시에 소비(consume)한다고 보았고, 따라서 최종재는 가구원들의 시간과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생산된다고 하였다. 최종재의 일종인 가정생산물을 생산함에 있어 투입된 시간과 시장재화간에는 대체관계가 성립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취업주부의 경우 동일량의 최종재를 생산하기 위해 외식, 택시서비스 등의 시간절약형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이 전업주부의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한편 Galbraith(1977)는 재화와 서비스의 사용은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법을 익혀야 함에 따른 노력이 요구됨에 따라, 일정 소비량을 초과하면서부터는 그로부터의 편의성을 지나 도리어 번거로움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주부들이 가계소비를 주관한다고 볼 때 취업주부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비취업

주부에 비해 소비를 적게 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며, 특히 사용에 따른 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내구재의 소비지출이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보다 적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앞서의 Mincer(1960)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으로 이후 이들 이론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었다.

반면 Brown(1982)은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가계는 동일한 소비패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도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추론을 설명하였는데, 즉 가족의 행위는 그들 사회계층을 통제하는 사회적 규범에 의해 결정되며 가계소득을 포함한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 가족의 우선적 목표라 하였다. 따라서 낮은 사회적 지위에 처한 주부는 보다 나은 지위에 있는 가계의 소득수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며, 노동에 의해 얻게 되는 추가소득을 추가소비에 사용함으로써 동일한 소비패턴을 추구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취업주부가계는 비취업주부가계와 비교할 때 동일한 가계소득을 가진 경우 동일한 소비패턴을 보인다고 추론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앞서의 이론들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2. 실증연구의 고찰

이처럼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은 경제이론에 근거하여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어왔으며, 이들 이론들을 검증하기 위한 다수의 실증연구들이 계속되어왔다. 전반적으로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의 실질적 증대를 통해 구매력의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정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킴에 따라 가계소비지출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Strober(1977)를 비롯한 많은 실증연구들에서 취업주부가계의 총소비지출 수준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총가계소득이 일정할 때에도 취업주부가계의 소비성향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Mincer(1960)에 의하면 취업주부소득은 임시소득으로 간주되어지며 따라서 Friedman의 향상소득가설에 의거할 때 이들 추가소득은 가계저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가계에서는 저축적 성향을 지니는 내구재의 구매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을 피할 수 있는 내구재 소비지출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Bryant, 1988; Reilly, 1982; Strober & Weinberg, 1977, 1980; Weinberg & Winer, 1983등).

이후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형 소비재에 대해 관심이 주어짐에 따라 주부취업과 가사노동대체상품 및 서비스의 이용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특히 70년대 당시 미국가계의 외식비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주부취업과 외식비지출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다. 실증연구결과들의 대부분은 주부취업과 가계의 외식비지출 규모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Goebel & Hennon, 1982; Lippert & Love, 1986; Redman, 1980; Sexauer, 1979등), 반면 조리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냉동식품 등의 편의식품 사용규모와는 몇몇 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Lippert & Love, 1986; Redman, 1980).

일부 연구자들은 주부취업과 관련하여 시간절약형 재화 및 서비스사용의 소비지출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와 더불어 취업관련지출에 관하여도 함께 분석되어지기도 하였다. 주부취업은 자녀양육서비스 비용과 관련이 있으며, 여타지출 비목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있는 실증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간사용전략들을 실증분석한 Nickols와 Fox(198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자녀양육서비스, 외식 및 일회용기저귀사용만이 취업주부가계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ellante와 Foster(1984)는 주부의 취업상태와 외식, 자녀양육서비스, 가사서비스, 의복관리서비스, 이미용관리에 대한 지출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자녀양육서비스만이 취업주부가계에서 지출이 전업주부

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 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주부취업과 서비스지출비목(외식, 자녀양육서비스, 의복관리서비스, 가사서비스)과의 관계를 다룬 Yang과 Magrabi(1989)의 연구에서 역시 자녀양육서비스 비용만이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주부가 풀타임취업인 경우 파트타임취업인 경우에 비해 외식비지출이 많았다. Jacobs, Shipp와 Brown(1989)은 주부취업상태를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나누어 이들의 소비지출행태를 주부취업여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몇 지출비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외식, 자녀양육서비스 및 자동차관련비용 등에서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높은 소비지출규모를 보였고, 공공교통비와 자동차값 지출 등과는 무관함을 보였다. 반면 여성피복비의 경우 풀타임취업주부가계만이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여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들은 주부취업과 관련하여 가계소비지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Vickery(1979)는 1972-73년 Consumer Expenditure Survey(이후 CES)를 사용하여 주부취업에 따른 가계경제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주부가 취업시 가계소비지출규모의 변화량을 추정한 결과 의복서비스, 교통비, 피복비등의 지출이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 밖에 보건의료비, 보험료등에 대한 지출이 비취업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Rubin, Riney와 Molina(1990)의 연구는 16개 가계지출세부항목에 대한 주부취업의 효과를 보았으며, 이를 위해 1972-72년과 1984년도 CES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계소득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가계소득이 \$40,000이상의 중산층이상 집단에서는 모든 지출비목에 대해 주부취업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0,000이하의 집단에서는 식료품, 외식, 월세, 개인교통비등에서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Democratic Study Group(1990)은 주부취업의 가계

경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산층 1인별이와 맞벌이 가계간의 '취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비목'들을 선택한 후 이들의 지출평균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1980년에서 1983년까지의 4년간의 CES자료를 사용하여 가계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지출세목별로 비교한 결과 개인교통, 가사서비스, 자녀양육서비스, 외식, 여성피복, 월세, 교육 및 각종 보험료 등에 있어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주부취업의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제미경과 박명희(1993)은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을 분석하면서 전업주부, 전문직주부 및 비전문직주부임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였다. 서울지역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대해 일원분산분석을 한 결과 외식, 배달음식 및 세탁서비스지출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은 반면, 옷수선과 파출부사용에 있어서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전문직주부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세정의 연구(1993)는 1990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원자료를 사용하여 주부취업에 따른 가정소비지출에의 변화를 소득효과와 취업관련효과를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부취업에 따라 가계소득이 높아짐으로써 소비지출비목 대부분에서 소비지출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가계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취업관련효과를 살펴보면 비취업가계에 비해 취업가계는 식료품, 외식,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 및 신발, 기타소비지출비에서 도리어 적은 규모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과 민현선(1992)은 서울/수도권 지역의 신혼가계를 중심으로 취업, 부분취업 및 부업, 비취업 등 세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총지출규모가 컸으며, 특히 피복

신발비, 교통통신비, 저축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식비와 교육교양비는 두 집단간 차이가 없었다.

문숙재와 김혜연(1995)의 연구는 취업관련 가정지출비목에 대하여 취업주부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조사, Tobit분석을 한 결과 취업지위변수가 취업동기나 취업에 대한 태도변수에 비해 가정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부가 자영업 또는 전문직이상에 종사하는 경우 단순노무직 종사자가계에 비해 배달음식 및 시장음식에 대한 지출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III. 연구방법

1. 자료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1994년 도시가계연보의 기초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연보 자료는 1963년이래 전국의 전도시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해 조사, 수집하고 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비목별 지출은 가계부 기장방식을 사용하였으며,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면접조사에 의하였다.

본 자료는 매월 전국 도시의 4000여 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전체 조사대상수가 6만여 가구에 이르나, 본 연구를 위하여는 이중 소득자료가 있는 4만여 근로자가구를 추려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이 중 가장과 배우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따라서 근로자만을 뽑은 본 연구대상의 모든 가정은 취업가정들이었다. 또한 가정의 연령이 65세이상이거나 25세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였으며, 가장과 배우자 이외 여타가구원이 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인 경우는 취업주부의 가계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끝으로 가계소득관련 및 소비지출자료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제외

함으로써 28,329가구를 최종연구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계소비지출의 세부비목들이다.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세분화한 9대지출비목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다시 세부적인 지출비목이 주부취업과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목에 대해 별도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출규모는 각 가계의 월지출액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가장 중심이 되는 변수는 주부취업변수이다. 주부취업변수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첫째,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로 이분화되며, 이때 취업주부는 주부소득이 0이 아닌 경우로 정의하였다. 둘째, 주부취업변수는 전업주부와 세 개의 주부취업변수로 나뉘어진다. 주부소득이 월 평균 40만원미만이면 저소득주부가계, 40만원에서 80만원미만은 중소득주부가계, 80만원이상인 경우는 고소득주부가계로 나뉘어 분석하였다¹⁾.

이 밖에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예상되는 총가계소득(기타소득), 가계저축,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자녀학령, 자가소유 여부, 가구주 직업등이 조절변수로 사용되었는데 이들 독립변수들은 앞서 논의된 우리나라의 관련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되(문숙재 & 김혜연, 1995; 양세정, 1993; 이기춘 & 민현선, 1992; 제미경, 박명희, 1993), 본 연구자료로부터 사용이 가능한 변수들이었다. 이 중 연속변수의 형태로 가구원 수 및 가구주 연령이 사용되었으며, 여타변수들은 질적특성에 따른 가계소비지출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변수의 형태로 사용되었는데 이에 대한 분류방법은 <표 2>를 참조하면 된다.

3. 연구모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실증분석모델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이다.

1) 먼저 총가계소득에서 주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을 살펴봄으로써, 주부취업에 따른 소비지출 규모의 총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즉 주부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변화와 주부취업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소비행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가계소비지출변화가 함께 추정되어진다. 이러한 모델은 다시 주부취업여부변수의 형태에 따라 각기 두 가지 형태로 수행된다.

$$\textcircled{1} \text{Exp}_i = f(\text{기타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취업 vs. 비취업), 기타가계특성변수})$$

$$\textcircled{2} \text{Exp}_i = f(\text{기타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주부 vs. 비취업), 기타가계특성변수})$$

2) 두 번째 모델은 총가계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주부취업에 따른 소비행태만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textcircled{3} \text{Exp}_i = f(\text{총가계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취업 vs. 비취업), 기타가계특성변수})$$

$$\textcircled{4} \text{Exp}_i = f(\text{총가계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주부 vs. 비취업), 기타가계특성변수})$$

3) 또한 취업주부간의 취업상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행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취업주부가계만을 대상으로 다음의 모델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textcircled{5} \text{Exp}_i = f(\text{기타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고소득, 중소득 vs. 저소득주부), 기타가계특성변수})$$

$$\textcircled{6} \text{Exp}_i = f(\text{총가계소득, 주부취업여부변수(고소득, 중소득 vs. 저소득주부), 기타가계특성변수})$$

이때 Exp_i 는 각 세부비목(i)의 소비지출액으로 $i =$

1) 취업주부가계의 주부소득에 근거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각기 25%, 중소득층을 50%로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여기에 소득 단위를 10만원단위로 분할하고자 함에 따라 40만원과 80만원에서 계층을 분할하였다.

〈표 1〉 가계소비지출 비목의 구체적 정의

지출 비목	구체적 정의
총소비지출	가계소비지출의 전부(월평균)
· 식료품	곡류,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및 해초, 과일, 음료, 주류, 유지 및 조미료, 빵 및 과자류, 식료품관련 서비스
· 의 식	식사대, 음주대, 학교급식, 기타외식
· 주 거 (월 세)	월세, 주택설비수리, 아파트관리비, 화재보험료 등 기타주거 월세
· 광열·수도	수도료, 전기료, 연료
· 가구집기·가사용품 (가사서비스)	일반가구, 가정용가구,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및 소모품, 침구 및 가사서비스 가사사용인급료, 보육료, 쓰레기봉투, 기타 가사서비스
· 피복·신발 (피복서비스)	외의, 스웨터 및 샤스, 내의, 직물 및 실, 기타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서비스 재봉료, 세탁료, 수선료, 기타피복 및 신발 서비스
· 보건의료	의약품, 보건의료용품기구, 진료비등 보건의료서비스
· 교 육	납입금, 교과서, 보충교육, 기타교육비, 문방구
· 교양오락	신문도서, 교양오락용품기구, 오락시설 입장료/이용료 등 교양오락서비스
· 공공교통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기차이용료 등
· 개인교통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의 비용, 개인교통유지수리
· 통 신	전화료, 우편요금, 정보통신이용료 등
·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경조사) (회 비)	담배, 이미용, 장신구, 경조사, 종교관계비, 관혼상제비 등 첫술, 치약, 화장품, 이미용기구,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등 축의금, 조의금, 기타경조비 동창회 등 친목단체회비, 노조비, 사우회비 등 사회단체회비

총소비지출, 식료품, 의식...등 19개 지출비목에 대해 분석하였다²⁾. 각 지출비목에 대한 세부적 정의는 〈표 1〉과 같다.

4. 통계분석방법

조사대상가구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빈도, 평균, 비율 등을 산출하였으며, 주부취업이 가계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부취업변수 및 여타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요인으로 예상되는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한 OLS(Ordinary Least Squares)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분석에 앞서 분석모델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여부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은 SAS-PC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대상가구는 28,329였으며, 이 중 취업주부가계는 24.9%를 차지하는 7,056가구, 전업주부가계는 75.1%인 21,273가구였다. 취업주부가계 중 주부소득이 40만원미만인 저소득주부가계는 전체대상

2) 월세비지출이 0인 가계가 전체조사대상의 84.5%에 이룸에 따라 다변량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밖에 아래 비목들에서 지출이 0인 비율이 10%를 초과하였으나 본 연구목적수행의 기본적 흐름을 고려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피복서비스(70.2%), 개인교통(58.3%), 경조사비(52.5%), 주거(49.0%), 교육비(29.2%), 가사서비스(20.9%).(()안은 지출액이 0인 가구의 비율임).

〈표 2〉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사회인구적 특성

(단위: 가구수, %)

사회인구적 특성	전체가계	취업주부가계	소득주부			전업주부가계
			저소득주부	중소득주부	고소득주부	
총대상가구수(%)	28,329 (100.0)	7,056 (24.9)	2,185 (7.7)	3,073 (10.8)	1,798 (6.4)	21,273 (75.1)
가구원 수: 인 (s.d.)	3.77 (1.00)	3.85 (1.06)	3.99 (1.00)	3.85 (1.12)	3.68 (1.02)	3.75 (0.98)
가구주연령:세 (s.d.)	37.73 (8.19)	39.56 (7.77)	39.75 (7.35)	39.90 (7.78)	38.77 (8.17)	37.13 (8.24)
가구주: 국졸이하 교육수준 (%)	6.39 12.57 45.11	12.03 18.96 40.65	14.38 22.93 48.60	15.02 22.75 42.24	4.06 7.68 28.25	4.53 10.44 46.58
	10.99 24.94	7.09 21.27	4.62 9.47	6.22 13.77	11.57 48.44	12.29 26.16
자녀존재: 유무(%)	취학전 43.76 국고생 43.87 중고생 21.40	24.42 55.26 31.46	29.66 63.30 28.74	16.30 56.00 36.67	31.92 44.22 25.86	50.17 40.09 18.07
자가여부: (%)	자가 30.09 자가/할부금 13.53 비자가 52.94 비자가/할부금 3.44	29.62 14.63 52.79 2.96	30.98 15.15 52.13 1.74	27.27 12.10 57.43 3.20	31.98 18.30 45.66 4.06	30.25 13.16 52.98 3.61
가구주: 직업 (%)	관리·전문직 10.69 기술직 15.26 사무직 18.62 서비스직 5.08 노무직 50.35	8.93 13.58 13.08 4.56 59.85	4.26 10.57 8.19 4.35 72.63	3.64 9.24 12.46 4.88 69.78	23.64 24.64 20.08 4.28 27.36	11.27 15.82 20.46 5.25 47.20

가구의 7.7%였으며, 주부소득이 40만원에서 80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취업주부가계중 가장 비중이 높아 전체대상가구의 10.8%였다. 한편 고소득주부가계인 주부소득이 80만원이상인 경우는 6.4%였다. 평균 가구원 수는 3.77명으로 취업주부가계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저소득주부가계의 가구원 수는 3.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주 연령 또한 취업주부가계가 39.56세로 전업주부가계의 37.13세에 비해 2세 이상이 높았다. 취업주부가계의 가구주 교육수준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예외적으로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4년대졸 이상인 경우가 48.44%로 전체조사대상가구의 평균치인 24.94%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들 집단의 높은 교육수준을 알 수 있다. 학령에 따른 자녀의 존재유무를 살펴보면 취학전 자녀

의 경우 취업주부가계의 24.42%만이 미취학 아동을 가지고 있으나, 전업주부가계는 50.17%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자녀양육에 있어 주부의 시간적 투자보다는 금전적 투자가 많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고생과 중고생의 존재는 도리어 취업주부가계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여부는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에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주택할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고소득주부가계의 18.30%는 주택관련부채를 안고 있는 자가보유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가구주가 많았다. 그러나 주부소득이 80만원이상인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가구주가 관리·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인 경우가 타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원천 및 저축규모

〈표 3〉은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원천 및 저축규모를 제시하였다. 전체가계의 월평균총가계소득은 1,649,019원이며, 취업주부가계는 이보다 많은 1,953,911원이고 전업주부가계는 1,547,891원이었다. 특히 고소득주부가계의 총가계소득은 전업주부가계의 거의 배에 가까운 2,923,657원이었다.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근로소득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부소득이 많음에 따라 총가계소득에서 배우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가구주소득 역시 1,448,190원으로 타집단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주부소득이 거의 가구주소득 수준과 유사한 1,289,575원이었다. 따라서 이 집단의 총가계소득에 대한 배우자소득의 기여율은 4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저축액은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취업주부가계가 높았다. 저소득주부가계의 총가계소득은 1,488,749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547,891원에 비해 적었으나 저축액은 477,234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444,912원에 비해 높았다. 특히 고소득주부가계는 저축액이 1,216,094원으로 거의 배우자소득 수준 만큼

을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표 4〉는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를 나타낸다.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 총소비지출은 1,171,651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078,788원에 비해 다소 높았다. 지출비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취업주부가계의 지출이 높았고, 반면 예외적으로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개인교통, 통신비지출은 전업주부가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부소득계층간 소비지출 역시 지출규모와 구성비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주부가계의 총소비지출은 984,641원이고, 고소득주부가계는 1,624,853원이었다. 저소득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적은 총가계소득과 총소비지출규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와 공공교통비 지출규모에 있어 오히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저소득주부가계의 교육비지출은 총소비지출의 11.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집단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는 저소득주부의 노동시장참여가 자녀의 교육비지출과

〈표 3〉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소득원천 및 저축규모

(단위: 원, %)

	전체가계	취업주부가계	저소득주부가계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전업주부가계
총가계소득(월평균)	1,649,019 (100.0)	1,953,911 (100.0)	1,488,749 (100.0)	1,717,261 (100.0)	2,923,657 (100.0)	1,547,891 (100.0)
· 근로소득	1,438,172 (87.2)	1,815,703 (92.9)	1,373,821 (92.3)	1,590,401 (92.6)	2,737,765 (93.6)	1,312,949 (84.8)
(가구주소득)	1,276,441 (77.4)	1,166,373 (59.7)	1,101,866 (74.0)	1,047,351 (61.0)	1,448,190 (49.5)	1,312,949 (84.8)
(배우자소득)	161,731 (9.8)	649,330 (33.2)	271,955 (18.3)	543,049 (31.6)	1,289,575 (44.1)	0 (0.0)
· 기타소득	210,847 (12.8)	138,208 (7.1)	114,928 (7.7)	126,860 (7.4)	185,892 (6.4)	234,942 (15.2)
(부업소득)	52,265 (3.2)	2,536 (0.1)	3,423 (0.2)	2,313 (0.1)	1,840 (0.1)	68,759 (4.5)
(재산·이전소득)	158,583 (9.6)	135,672 (6.9)	111,505 (7.5)	124,547 (7.3)	184,052 (6.3)	166,182 (10.7)
저축액(월평균)	518,896	741,951	477,234	652,755	1,216,094	444,912

〈표 4〉 취업주부가계와 전업주부가계의 지출비목별 소비지출규모

(단위: 원, %)

	전체가계	취업주부가계	취업주부가계			전업주부가계
			저소득주부가계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총소비지출	1,101,918 (100.0)	1,171,651 (100.0)	984,641 (100.0)	1,039,455 (100.0)	1,624,853 (100.0)	1,078,788 (100.0)
· 식료품	231,053 (20.97)	229,034 (19.55)	223,012 (22.65)	216,913 (20.87)	257,067 (15.82)	231,723 (21.48)
· 외 식	90,933 (8.25)	107,789 (9.20)	82,710 (8.40)	99,838 (9.60)	151,854 (9.35)	85,342 (7.91)
· 주 거 (월 세)	41,475 (3.76)	44,199 (3.77)	32,656 (3.32)	46,851 (4.51)	53,695 (3.30)	40,571 (3.76)
· 광 열 · 수 도	17,821 (1.62)	22,857 (1.95)	18,285 (1.86)	26,309 (2.53)	22,515 (1.39)	16,150 (1.50)
· 가 구 집 기 · 가 사 용 품 (가 사 서 비 스)	44,177 (4.01)	43,893 (3.75)	43,076 (4.37)	42,197 (4.06)	47,783 (2.94)	44,271 (4.10)
· 가 구 집 기 · 가 사 용 품 (가 사 서 비 스)	57,507 (5.22)	67,877 (5.79)	46,845 (4.76)	52,241 (5.03)	120,159 (7.40)	54,068 (5.01)
· 가 구 집 기 · 가 사 용 품 (가 사 서 비 스)	8,549 (0.78)	16,932 (1.45)	5,704 (0.58)	6,773 (0.65)	47,938 (2.95)	5,768 (0.53)
· 피 복 · 신 발 (피 복 서 비 스)	84,321 (7.65)	93,662 (7.99)	75,235 (7.64)	82,344 (7.92)	135,400 (8.33)	81,211 (7.53)
· 피 복 · 신 발 (피 복 서 비 스)	2,884 (0.26)	3,174 (0.27)	2,045 (0.21)	2,552 (0.25)	5,608 (0.35)	2,789 (0.26)
· 보 건 의 료	52,522 (4.77)	49,517 (4.23)	41,562 (4.22)	43,034 (4.14)	70,265 (4.32)	53,519 (4.96)
· 교 육	102,574 (9.31)	123,329 (10.53)	113,853 (11.56)	119,772 (11.52)	140,923 (8.67)	95,690 (8.87)
· 교 양 오 락	53,989 (4.90)	57,134 (4.88)	41,733 (4.24)	43,647 (4.20)	98,901 (6.09)	52,946 (4.91)
· 공 공 교 통	30,522 (2.77)	36,612 (3.12)	31,245 (3.17)	35,641 (3.43)	44,794 (2.76)	28,501 (2.64)
· 개 인 교 통	83,894 (7.61)	74,189 (6.33)	55,073 (5.59)	42,398 (4.08)	151,755 (9.34)	87,114 (8.08)
· 통 신	19,156 (1.74)	18,942 (1.62)	17,551 (1.78)	17,338 (1.67)	23,372 (1.44)	19,228 (1.78)
· 기 타 소 비 지 출 (이 미 용 / 서 비 스)	209,803 (19.04)	225,475 (19.24)	180,089 (18.29)	197,241 (18.98)	328,886 (20.24)	204,604 (18.97)
· 기 타 소 비 지 출 (경 조 사)	42,506 (3.86)	46,654 (3.98)	40,063 (4.07)	43,493 (4.18)	60,068 (3.70)	41,130 (3.81)
· 기 타 소 비 지 출 (회 비)	30,090 (2.73)	33,402 (2.85)	28,426 (2.89)	29,524 (2.84)	46,076 (2.84)	28,991 (2.69)
· 기 타 소 비 지 출 (회 비)	78,269 (7.10)	85,663 (7.31)	62,785 (6.38)	69,117 (6.65)	141,745 (8.72)	75,817 (7.03)

전혀 무관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고소득주부가계의 소비지출규모를 살펴보면 저소득 및 중소득주부가계에 비해 취업관련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에 있어 뚜렷한 격차를 나타낸다. 외식비 비중은 총소비지출의 9.35%로 전업주부가계의 7.91%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특히 파출부 및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하는 가사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47,938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5,768원에 비해 8.3배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였다. 교통비의 경우 저소득 및

중소득주부가계의 경우 공공교통비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반해 고소득주부가계는 개인교통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주부소득이 높은 경우 주부의 통근을 위한 승용차의 추가구입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4. 주부취업이 지출비목별 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

주부취업이 지출비목별 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

〈표 5〉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회귀분석결과(취업주부의 회귀계수: t-값)

〈기타소득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가계 ^①	주부소득수준별 ^②		
		저소득주부가계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총소비지출	585434**(112,799)	243174**(33,851)	491075**(77,340)	1136953**(143,955)
· 식료품	11627**(7,347)	-549 (0,222)	4256 (1,954)	37492**(13,771)
· 외 식	41687**(31,164)	18872**(9,048)	38558**(20,916)	73533**(32,067)
· 주 거	21229**(9,111)	1847 (0,506)	23388**(7,247)	40789**(10,161)
· 광열·수도	1137* (2,245)	220 (0,278)	390 (0,555)	3382**(3,875)
· 가구집기·가사용품 (가사서비스)	70489**(22,269) 17804**(15,889)	28502**(5,767) 4570**(2,616)	57338**(13,127) 8882**(5,753)	140601**(25,878) 47335**(24,648)
· 피복·신발 (피복서비스)	37695**(22,634) 1136**(8,106)	16781**(6,451) 147 (0,671)	31192**(13,566) 734**(3,781)	72543**(25,364) 2932**(12,147)
· 보건의료	8015**(4,924)	-2771 (1,087)	2932 (1,301)	28678**(10,230)
· 교 육	31853**(11,195)	17010**(3,813)	29792**(7,556)	52610**(10,727)
· 교양오락	35937**(15,150)	13389**(3,608)	26529**(8,089)	77236**(18,934)
· 공공교통	10308**(17,265)	5700**(6,096)	8890**(10,756)	17964**(17,473)
· 개인교통	210183**(30,726)	95344**(8,951)	176944**(18,794)	397691**(33,959)
· 통 신	705**(2,627)	-333 (0,794)	-744* (2,005)	4186**(9,066)
·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경조사) (회 비)	104570**(30,075) 10133**(17,790) 10345**(10,279) 27039**(19,979)	49164**(9,069) 4204**(4,719) 5407**(3,427) 5770**(2,742)	91610**(19,119) 8455**(10,737) 8809**(6,317) 16206**(8,714)	190247**(31,921) 19753**(20,165) 18573**(10,707) 69042**(29,846)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① 추정식 $Exp_i = a_0 + a_1OINCOME + a_2EW + \sum a_j X_j + e_i$

Exp_i=각 지출비목(i)의 지출액; OINCOME=기타소득; EW=취업주부; X_j=여타가계특성변수에서 a₂(회귀계수)임.

② 추정식 $Exp_i = a_0 + a_1OINCOME + a_2LEW + a_3MEW + a_4HEW + \sum a_j X_j + e_i$

LEW=저소득주부, MEW=중소득주부, HEW=고소득주부에서 a₂, a₃, a₄(회귀계수)임.

〈총가계소득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가계 ^㉑	주부소득수준별 ^㉒		
		저소득주부가계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총소비지출	-23637** (5,569)	-14472* (2,180)	-17823** (3,052)	-45950** (6,026)
· 식료품	-25492** (16,191)	-16410** (6,666)	-27003** (12,469)	-34934** (12,353)
· 외 식	12108** (9,131)	6382** (3,077)	13945** (7,644)	16518** (6,934)
· 주 거	1461 (0,629)	-6473 (1,782)	6934* (2,170)	2470 (0,592)
· 광열·수도	-1904** (3,771)	-1064 (1,347)	-2158** (3,106)	-2579** (2,842)
· 가구집기·가사용품 (가사서비스)	4571 (1,455) 13185** (11,816)	619 (0,126) 3018 (1,737)	2432 (0,562) 5727** (3,746)	13554* (2,400) 39695** (19,884)
· 피복·신발 (피복서비스)	-1974 (1,195) 93 (0,665)	-52 (0,020) -275 (1,258)	-2010 (0,884) -110 (0,574)	-4467 (1,504) 935** (3,729)
· 보건의료	-6098** (3,761)	-8583** (3,385)	-8616** (3,863)	1594 (0,547)
· 교 육	-182 (0,064)	3350 (0,755)	2813 (0,721)	-10093* (1,980)
· 교양오락	-199 (0,084)	-1771 (0,480)	-3433 (1,058)	7527 (1,776)
· 공공교통	6060** (10,187)	3963** (4,260)	5447** (6,656)	9917** (9,280)
· 개인교통	10125 (1,503)	11241 (1,067)	10275 (1,109)	8378 (0,692)
· 통 신	-1119** (4,183)	-1098** (2,625)	-2234** (6,072)	796 (1,657)
·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경조사) (회 비)	-20994** (6,093) 2343** (4,136) 2557* (2,548) 4433** (3,311)	-4575 (0,849) 947 (1,069) 2137 (1,362) -3461 (1,656)	-14215** (3,000) 2016** (2,587) 2339 (1,694) -2091 (1,137)	-54632** (8,829) 4767** (4,684) 3493 (1,937) 26292** (10,951)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㉑ 추정식 $Exp_i = a_0 + a_1INCOME + a_2EW + \sum a_jX_j + e_i$

Exp_i = 각 지출비목(i)의 지출액; $INCOME$ = 총가계소득; EW = 취업주부; X_j = 여타가계특성변수에서 a_2 (회귀계수)임.

㉒ 추정식 $Exp_i = a_0 + a_1INCOME + a_2LEW + a_3MEW + a_4HEW + \sum a_jX_j + e_i$

LEW = 저소득주부, MEW = 중소득주부, HEW = 고소득주부에서 a_2, a_3, a_4 (회귀계수)임.

한 회귀분석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먼저 주부 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과 여타가구특성변수를 조절한 상태에서의 가계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면, 취업주부가구의 경우 전지출비목에서 지출규모가 전업주부가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기타소득을 가진 두 집단을 비교했을 때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 585,434원을 더 지출하였으며, 특히 고소득주부가계는 무려 1,136,953원을 초과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 두 집단의 가계소비지

출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교통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는데 주부가 취업을 하는 경우 월평균 210,183원을 추가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외식, 가사서비스를 포함하는 가구집기·가사용품, 피복·신발, 교육, 교양오락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소득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와 비교할 때 전 지출비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총소비지출의 차이 1,136,953원중 개인교통비가 397,691원으로 35%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가구집기·가사용품 또한 월평균

지출액의 차이가 140,601원에 이르렀는데 이중 가사서비스비에서의 차이가 47,335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식비,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 또한 취업주부가계가 월평균 70,000원 이상 규모로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소득을 조절한 상태에서의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의 비교는 주부소득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규모의 변화와 주부취업에 따른 생활양식변화에 따른 소비패턴차이에서 비롯되는 소비지출규모의 변화가 함께 포함되어진다. 따라서 후자의 효과만을 보기 위하여 가계의 총소득을 조절한 상태에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규모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취업주부가계는 총소비지출에 있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 23,637원을 도리어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0년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양세정(1993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지만, 관련이론연구들이 주장하였듯이 (Strober, 1977) 취업주부가계의 소비성향 내지는 소비지출규모가 높으리라는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식, 가사서비스, 공공교통, 이미용/서비스, 경조사, 회비등에서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지출이 많았으며,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통신비지출에 있어서는 도리어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부취업상태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주부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고소득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월평균 45,950원의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식사준비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드는 식료품비의 지출이 34,934원 적게 나타난 반면, 식료품비의 대체재적 성격을 지니는 외식비 지출의 경우 16,518원이 많았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도 많이 보여졌듯이 서비스 관련 지출비에 있어 취업주부가계의 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서비스의 경우 중소득주부와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월평균 39,695원을

초과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피복서비스비와 이미용/서비스비에 있어서도 고소득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보다 지출규모가 컸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형태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가사노동시간을 절약하고자 하는 관리방법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이는 Strober와 Weinberg(1977)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주부취업과 개인교통비와의 관계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공공교통비에 있어서는 모든 취업주부가계집단에 있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유의한 수준의 초과지출이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복·신발비에 있어서는 고소득주부가계조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은 총가계소득이 동일하게 조절된 상태에서 취업을 위한 의복 및 신발에 대한 추가수요가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한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이 비목에 대한 지출이 전업주부가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부가 시장노동에 시간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기타 비시장노동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가능시간의 양은 적으며, 따라서 소비행위에 있어 시간사용이 요구되는 지출비목들에 대한 지출은 도리어 취업주부가계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신,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비 등에 있어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소비지출규모가 적었다. 통신비와 보건의료비의 경우 저소득 및 중소득주부가계에 있어 유의한 소비지출규모의 차이를 보였다. 취업주부의 경우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전화비 등을 포함하는 통신비지출이 적었으며, 보건의료비의 경우도 유사하게 취업주부의 시간부족에 따라 가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의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각종 모임의 회비지출의 경우 저소득, 중소득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와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고소득주부가계는 월평균 26,292원이 많았다. 한편 기타소득수준이 조절된 상태에서 살펴본 경우 주부취업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지출이 현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총가계소득을 조절한 주

부취업상태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교육비지출은 10,093원이 도리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총가계소득이 동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재정적 여력의 문제라기 보다는 주부의 자녀교육에 대한 정신적 여력의 문제로 전환되기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즉 교육을 위한 관심 및 관심의 실행이 시간적 여력이 부족한 취업주부인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적게 실행되기 때문이다.

〈표 6〉은 취업주부가계집단들에서 주부취업상태가 달라짐에 따른 지출비목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기타소득이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 저소득

주부가계에 비해 중소득과 고소득주부가계의 소비지출규모는 거의 전 지출비목에 있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가계소득을 조절하였을 때 저소득주부가계와 중소득주부가계간에는 소비지출규모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식비와 가사서비스지출에서 다소 차이를 드러낼 뿐이었는데, 식료품비 지출이 중소득주부가계가 월평균 9,367원이 적었으며 외식비지출은 8,812원이 많았다. 가사서비스도 중소득주부가계가 5,020원의 지출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저소득주부가계와 소비패

〈표 6〉 취업주부간 주부취업형태가 지출비목별 규모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결과(취업주부의 회귀계수: t-값)

	취업주부가계 [ⓐ]		주부소득수준별 [ⓑ]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중소득주부가계	고소득주부가계
총소비지출	219593** (16,239)	751059** (44,264)	-8211 (0,664)	-24795 (1,464)
· 식료품	3094 (1,036)	40365** (10,776)	-9367** (3,140)	-2204 (0,539)
· 외 식	18945** (7,069)	51409** (15,287)	8812** (3,280)	17069** (4,637)
· 주 거	18866** (3,770)	36567** (5,823)	8451 (1,681)	1196 (0,174)
· 광열·수도	-61 (0,060)	3287* (2,569)	-1213 (1,184)	-782 (0,557)
· 가구집기·가사용품 (가사서비스)	30220** (4,314) 6074** (3,592)	88468** (10,064) 31399** (14,799)	6516 (0,925) 5020** (2,955)	9252 (0,959) 27345** (11,747)
· 피복·신발 (피복서비스)	13066** (4,167) 620* (2,369)	51897** (13,190) 2519** (7,668)	2246 (0,716) 135 (0,516)	14599** (3,399) 793* (2,206)
· 보건의료	4906 (1,603)	29130** (7,584)	-878 (0,286)	8894* (2,114)
· 교 육	13720** (2,265)	27728** (3,649)	-175 (0,029)	-19035* (2,283)
· 교양오락	11283* (2,191)	56578** (8,757)	-1901 (0,368)	11248 (1,590)
· 공공교통	2604* (2,415)	10204** (7,541)	944 (0,872)	4462** (3,007)
· 개인교통	61600** (4,385)	243391** (13,808)	-10105 (0,726)	-5041 (0,264)
· 통 신	-390 (0,617)	4284** (5,403)	-1191 (1,873)	1737* (1,993)
· 기타소비지출 (이미용/서비스)	41740** (5,730) 3783** (3,199)	107751** (11,788) 12852** (8,661)	-10350 (1,412) 1409 (1,187)	-66189** (6,592) 4612** (2,838)
(경조사)	5174* (2,360)	9796** (3,561)	1683 (0,764)	-2074 (0,687)
(회 비)	11200** (3,889)	55899** (15,468)	2340 (0,812)	25192** (6,384)

*p<.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추정식 $Exp_i = a_0 + a_1OINCOME + a_2MEW + a_3HEW + \sum a_i X_i + e_i$

EXP_i = 각 지출비목(i)의 지출액; OINCOME = 기타소득; MEW = 중소득주부, HEW = 고소득주부에서 a₂, a₃(회귀계수)임.

ⓑ 추정식 $Exp_i = a_0 + a_1INCOME + a_2MEW + a_3HEW + \sum a_i X_i + e_i$

INCOME = 총가계소득; MEW = 중소득주부, HEW = 고소득주부에서 a₂, a₃(회귀계수)임.

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 가사서비스, 피복서비스, 이미용/서비스등 서비스를 사기 위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이들 고소득주부들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절약을 위해 관리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 특히 파출부비용과 자녀탁아비등을 포함하는 가사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 고소득주부가계의 소비지출규모가 월등히 많음으로써(27,345원) 상대적으로 저소득주부들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의 이중적 노동에 의한 어려움을 짐작케 한다.

이 밖에 피복·신발비에 대한 지출도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 고소득주부가계가 월평균 14,599원이 많았다. 피복·신발에 대한 지출의 경우 전업주부가계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앞서의 연구결과와 비추어볼 때 의복 및 신발을 구매하기 위한 시간적 여력이 작용했기때문으로 추측되며, 동시에 저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주부소득을 통한 생필품 구매에의 활용이 활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선택재적 성향이 강한 이 지출비목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기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에 의해 고소득주부의 경우 취업에 필요한 추가의복 및 신발을 구매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있기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 고소득주부가계의 공공교통비 또한 4,462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부취업유형과 개인교통비 규모와는 무관하였다.

양세정(1993)의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비의 지출에 대해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적은 규모의 지출을 함으로써 이들 가구원의 건강관리에 상대적 열등상태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계간의 이 지출비목에 대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으며, 저소득층과 비교한 경우 도리어 보건의료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통신비에 있어서도 고소득주부가계는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 지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회비지출에 있어 앞서의 전업주부가계에 비해서 지출이 많았음을 물론이고,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서도 월평균

25,192원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주부의 경우 보다 시장노동참여시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각종 취업관련모임 등의 회비 등의 지출 또한 많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된다.

총가계소득이 일정할 때 저소득주부가계에 비해 고소득주부가계의 지출규모가 적은 비목은 유일하게 교육비였다. 교육비지출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고소득주부의 경우 저소득주부에 비해 보다 많은 시간을 시장노동에 참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리시간 및 관심도가 적을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총가계소득 하에서 가계교육비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V.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주부취업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부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의 가계소비지출상태를 비교함으로써 주부취업에 따른 소비지출의 총변화량을 살펴보고, 더불어 총가계소득이 동일한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를 비교해 봄으로써 취업상태에 의한 가계소비지출의 변화형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부소득수준에 따른 집단별로 주부취업의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취업주부가계의 월평균 총가계소득은 1,953,911원으로 전업주부가계가 1,547,891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특히 고소득주부가계의 총가계소득은 2,923,657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업주부가계의 총소비지출은 월평균 1,171,651원으로 전업주부가계의 1,078,788원에 비해 다소 많았다. 따라서 평균소비성향은 전업주부가계가 취업주부가계와 비교했을 때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상태는 가계소비지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주부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은 보다 명확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타소득 및 가계특성변수를 조절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취업주부가계는 전지출비목에 대해 전업주부가계보다 많은 규모의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비 지출의 경우 취업주부가계는 월평균 585,434원을 추가지출하였으며, 주부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총소비 지출규모는 커져서 고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1,136,953원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증가계소득이 동일할 때 취업주부가계는 외식, 가사서비스, 공공교통, 이미용/서비스, 경조사 및 회비 등에 대한 지출이 많았으며, 반면 식료품, 광열·수도, 보건의료 및 통신비 등의 지출이 적게 나타났다. 특히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했을 때 고소득주부가계의 피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많았으며, 교육비지출의 경우 도리어 지출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부취업에 따라 양적인 측면에서 가계소비지출이 많아졌으며 이는 주부취업이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킴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주부가계의 경우 주부취업에 따른 서비스사용이나 취업관련 비용비목에 대한 지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은 이들의 소득이 주부자신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기 보다는 여타 가구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둘째, 우리나라의 취업주부가계는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평균소비성향이 적었으며, 따라서 저축성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련이론(Strober, 1977)과는 상반된 것으로 취업주부가계의 경우 주택마련 등의 미래지향적 경제적 목표달성을 위해 취업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성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취업주부가계의 소비지출행태는 주부의 시간여력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절약을 위한 외식, 가사서비스, 피복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동시에 소비를 위한 시간의 추가사용이 필요한 보건의료비의 경우 도리어 지출이 적었으며, 교양오락비에 대한 지출은 집단간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외국연구의

경우(Democratic Study Group, 1990; Vickery, 1979) 주부의 취업비용의 일종으로 검증되었던 피복·신발비지출 역시 고소득주부가계에서조차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주부취업에 따라 의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지출비목 역시 소비를 위한 추가적 쇼핑시간이 요구됨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증가계소득이 일정할 때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고소득주부가계의 교육비지출이 도리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역시 취업주부가 자녀교육을 위한 정보수집 및 자녀교육관리에 대한 정신적 역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선행연구(양세정, 1993)의 경우 외식, 가사서비스, 피복·신발등 주부취업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비목에 대해 취업주부와 전업주부가계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들 비목에 대해 중소득 및 특히 고소득주부가계에서 지출이 많았으며, 피복·신발의 경우는 저소득주부가계와 비교할 때 고소득주부가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들이 점차 취업에 필요하거나 취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비목에 대해 지출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주부 본인의 입장에서의 긍정적 변화는 앞으로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녀양육비등이 포함되는 가사서비스에 대한 취업주부의 부가지출은 자녀탁아비용이 주부취업에 따른 절대경비의 존재임을 시사하며,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지출항목의 분류와 함께 분석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다섯째, 식료품과 외식비지출에 대해 살펴보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취업주부가계의 식료품비 지출규모는 적었으며 반면 외식비 지출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식비 내에서의 두 지출비목간에 대체제적 성향을 가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한편으로는 취업주부의 상대적인 식사준비시간의 부족에 따른 소홀함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광열·수도비와 통신비의 경우 주부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적음에 따라 지출이 적어지는 비

목이었다. 그러나 통신비의 경우 앞으로 개인휴대통신 등의 발달에 따라 취업주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비목에 대한 지출형태는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유사한 비목으로 교통비를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취업주부가계의 공공교통비지출이 전업주부가계에 비해 많고 개인교통비에서는 유의한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통근용 자가용의 사용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이 두 비목간의 지출행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취업주부의 직업 또는 취업상태(풀타임 vs. 파트타임등) 등에 대한 자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전업주부가계와 비교하였을 때 월소득 80만원이상인 고소득주부가계는 회비, 가사서비스비 등에 대한 초과지출을 보임으로써 이들 주부들이 풀타임의 성향을 많이 띠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밖에 취업주부의 가계소비지출에의 영향력에 있어 시간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부의 취업시간양에 대한 정보와 함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요구량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행해짐으로써 주부의 시간사용과 가계소비지출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이 요망된다.

■ 참고문헌

- 1) 문숙재 · 김혜연(1995). 취업주부의 취업관련 지출과 가정경제에 대한 기여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39-53.
- 2)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2), 17-28.
- 3) 이기춘 · 민현선(1992). 도시신혼가계의 주부취업과 경제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9(4), 107-120.
- 4) 제미경 · 박명희(1993). 도시주부의 시간절약서비스 지출과 관련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 1-13.
- 5) 통계청(1996). 1996 한국의 사회지표.
- 6)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7) Bellante, D. & Foster, A.C.(1984). Working wives and expenditure on servic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00-707.
- 8) Brown, C.(1982). Consumption norms, work roles, and economic growth. In C. Brown & J.A. Pechman(Eds.), *Gender in the workplace*(p.13-58).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 9) Bryant, W.K.(1988). Durables and wives' employment yet agai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7-47.
- 10) Democratic Study Group(1990). *They didn't come to the party: A tough decade for families in the middle*(Special Report No. 101-32). Washington, DC: U.S. House of Representatives.
- 11) Friedman, M.(1957).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Princeton, MA: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2) Galbraith, J.K.(1977). *Economics and the public purpose*. Boston, MA: Houghton Mifflin.
- 13) Geobel, K.P. & Hennon, C.B.(1982).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among wife's employment status, stage in the family life cycle, meal preparation time, and expenditures for meals away from home.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6, 63-78.
- 14) Jacobs, E., Shipp, S. & Brown, G.(1989). Families of working wives spending more on services and nondurables. *Monthly Labor Review*(Feb), 15-23.
- 15) Lippert, A. & Love, D.O.(1986). Family expenditures for food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Family Economics Review*(3), 9-14.
- 16) Mincer, J.(1960). Employment and consumptio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American Economic Review* 50(2), s74-83.
- 17) Nickols, S.Y. & Fox, K.D.(1983). Buying time and saving time: Strategies for managing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 Research* 10, 197-208.
- 18) Redman, B.J.(1980). The impact of women's time allocation on expenditure for meals away from home and prepared food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2, 234-237.
- 19) Reilly, M.D.(1982). Working wives and convenience consump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407-418.
- 20) Rubin, R.M., Riney, B.J. & Molina, D.J.(1990). Expenditure pattern differentials betwee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s: 1972-1973 and 1984,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 43-52.
- 21) Sexauer, B.(1979). The effect of demographic shifts and changes in the income distribution on food-away-from-home expenditure,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1, 1046-1057.
- 22) Strober, M.H.(1977). Wives' labor force behavior and family consumption patterns, *American Economic Review* 67(1), 410-417.
- 23) ————— & Weinberg, C.B.(1977).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 141-147.
- 24) Vickery, C.(1979). Women's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family. In R.E. Smith(Ed.), *The subtle revolution*(p.159-200).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25) Weinberg, C.B. & Winer, R.S.(1983). Working wives and major family expenditures: Replication and extens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259-263.
- 26) Yang, S. & Magrabi, F.(1989). Expenditures for services, wife's employment, and other household characteristics, *Home Economic Research Journal* 18(2), 133-147.